

엔고 시정을 위해 제시된 각 당의 정책

- 엔고는 일본의 수출부진과 산업공동화의 주범이라는 점에서, 엔고대책이 중의원 선거에서 큰 쟁점이 되었음
- 각 정당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, 크게는 시장개입에 의한 단기적인 처방과, 산업구조 전환에 의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음

□ 시장개입과 산업구조 전환의 2가지 접근

- 엔고 시정을 위해 각 정당들이 제시한 대책은, 크게는 시장개입에 의한 접근과 장기적인 체질전환에 의한 구조적인 접근으로 구분
 - 자민당은 민관 공동으로 외국채권구입기금을 창설하여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안을 제시
 - 민주당은 급격한 엔고 시에만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대응하는 기존의 노선을 유지
 - 제 3극은 엔고에 강한 산업구조로의 전환 해법을 제시
- 민주당 정권기인 3년 3개월 동안, 엔화 환율은 20엔 가까이 엔고가 진행되었고, 이 과정에서 4차례의 개입이 있었음
 - 2008년 9월 리먼 위기와 유럽재정위기를 배경으로 엔고가 가속, 2011년 10월말에는 달러당 75엔 32전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
 - 2010년 9월에는 6년 반 만에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이 엔화 매도 개입을 재개

- 현재 엔고세가 한풀 꺾였다고는 하나, 엔고 시정책은 중의원선거에서 커다란 쟁점이 되었음
- 이는 엔고가 시정되어 전반적으로 기업실적이 개선되면 디플레 탈출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임

□ 자민당은 외채펀드 창설을 통한 적극적 개입을 주장

- 자민당은 대담한 금융완화, 정부와 일본은행 간의 관계를 강화시켜 엔고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
- 공약에서 민관 공동으로 외채펀드 창설을 제안. 일본정부·일본은행과 민간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무성·일본은행에 의한 50조엔 규모의 외채구입 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
- 외국 채권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에서 엔화를 매도, 달러나 유로 등의 외화를 매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엔고 시정 효과가 있음
- 이 방법은 일본정부·일본은행의 외환시장 개입과 동일, 제 2의 외환개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수단임
- 그러나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. 정부가 기금에 출자할 때, 외국환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조달
- 특별회계법은 외국환자금특별회계자금은 외환매매에만 충당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, 엔화자금의 기금출자는 인정되고 있지 않음
- 법 개정이 가능하다 해도 사실상 외환개입으로 간주되어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임

- 일본은행의 기금출자는 총리·재무상이 인정하면 가능
 - 외환시장 안정은 재무성의 소관사항으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환율을 변동시킬 목적의 기금출자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

□ 민주당은 과도한 엔고 시에만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

- 민주당은 선거공약에서 엔고를 시정하는 대증요법을 제시
 -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엔고에 대응해 온 민주당은 선거공약에서 과도한 엔고,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 시에만 단호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임
 - 투기적인 요인으로 인한 급격한 엔고 시에 한하여 정부와 일본은행이 개입한다는 이제까지의 자세를 견지할 방침

□ 제 3극, 산업구조 개혁을 통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응

- 우도 좌도 아닌 「제 3극」은 일본의 산업구조를 개혁, 엔고에 강한 체질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엔고시정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림
 - ‘일본유신의 회’는 유신 8책에서 환율에 좌우되지 않는 산업구조, 소득·서비스 수지의 흑자를 중시한다는 대책을 제시
 - 엔고를 배경으로 직접투자를 확대, 해외에서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산업구조 개혁을 강조하고 있음
 - ‘일본미래의 당’은 행정규제를 없애고 내수주도의 경제성장을 해나가면 엔고가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처방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

- ‘모두의 당’은 엔화표시무역을 확대시키는 등 엔화의 국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

□ 시사점

- 일본입장에서는 엔고는 수출부진과 산업공동화의 주범이라는 점에서, 엔고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
- 다만, 엔고 시정은 단순히 엔고를 시정하는 것이며, 엔고 대응은 엔고시정도 포함하여 엔고와 관계없거나 엔고의 영향을 적게 받는 산업으로의 구조를 전환하는 것임
- 엔고 시정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시장개입인데, 개입의 방법과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개입을 통한 시정효과를 노린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임
- 자민당의 정책도 제 2의 외환개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수단임
- 엔고대응책은 시장개입에 의한 엔고 시정책과, 엔고 감응도를 낮추는 방향으로의 산업구조로의 전환 두 가지를 병행함으로써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음
- 이 두 가지 접근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양자를 혼합한 단기적인 접근과 중장기적인 접근, 대중적인 접근과 구조적인 접근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할 수 있음

< 참고자료 >

日本經濟新聞(2012.12.15)